<주 사 기>

최지훈

s#1 병원 로비

힌가해 보이는 로비 안. tv 에선 <영화는 설득이다>가 하고 있고 병원에 앉아 있는 영수. 옆에는 모르는 사람이 tv 를 시청하고 있다.

간호사

최지훈님?

Tv 를 보다가 간호사의 부름에 데스크로 가는 남성. 간호사에게 설명을 듣고 병원 밖으로 나간다. 여전히 골골대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영수.

간호사

최영,,식 님 ?

영수

(머뭇머뭇) 저 ,, 영수

간호사

(어쩌라고) 들어가실께요.

빈 로비에서 노래가 들려오고 타이틀이 뜬다.

(V.o) 방금 출근한 간호사와 인사를 나누는 로비 간호사.

천천히 타이틀이 뜬다. <주사기>

슈욱

s#2 진료실

의사의 얼굴이 보이고 뒤이어 영수의 얼굴도 보인다. 쭈뼛쭈뼛

의사

최영,,,식님?

영수

영수,,

의사

어디가 불편해서

영수

제가 밤새 에어컨을 틀고 자서 그런지 살짝 열도 나고

의사

잠시만요,,,온도계. 온도계가 어디,,

의사 온도계를 찾는다. 서랍에 온도계가 보이지만

의사

아 온도계가 고장 나서,,, 잠시 ,,

의사 영수의 이마에 손을 올려 놓는다. 애매한 듯 고개를 갸우뚱. 자신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고 이마에 손을 땐다.

의사

그러면 약이랑 맞고 가실래요?

영수

(당황) 주사요?

s#3 병원로비

로비에 다시 앉아있는 영수.

간호사

최영수님 맞으러 들어가실께요.

영수 의자에서 일어나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간호사 데스크를 한번 훑으며

영수

주사실,,?

간호사

(대충 쳐다도 안보며) 네네

영수 주사실로 성큼성큼 향한 후 주사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s#4 주사실 안

영수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주사를 준비 중인 수진. 영수와 수진 둘이 동시에 보자마자 3초 간 뇌 정지 후. 못 본걸 본듯 고개를 돌리며 탄식한다.

영수

아

수진

아

그 와중에 수진 손에 있던 주사를 떨어트린다. 황급히 다시 땅에서 집어 들어올린다.

한번 더 눈이 마주치고 고개를 돌린 뒤 다시 탄식. 서로 눈을 못마주치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영수

(힐끔 보면서) 너 여기서 근무해?

수진

어,,, (고개를 휙 돌리며) 왜 여기에 진료 받으러 와?

영수

(억울, 고개 돌리며) 여기서 근무한다고 말을 하던가,, 여기가 우리집이랑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이상한 추측하지마.

수진

(헛 웃음) 내가 너한테 왜 이야기 해. 니가 뭔데?

영수

(못마땅) 그래 여전하네 그럼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주사 놔달라고 할께

(나가려고 하는데)

수진

(붙잡지는 못하고 멀리서) 야! 잠깐! 나 오늘 첫 근무란 말이야

영수

그게 왜

수진

주사도 못놓는 애 들어왔다고 하면 ,, 됐고 빨리 엉덩이나 까

관자놀이를 잡으면서 고민한다. 수진의 이야기에 흔들린다.

영수

팔은 ,,안되겠지?

수진

팔은 안되지

영수

(이건 못 받아 치겠지?) 하.. 진짜,, 너 내 엉덩이 볼 자신 있어?

수진

(비꼼) 오히려 보고 싶어 잘 지내나

영수

그러니까 내 엉덩이 보고도 반하지 않을 자신 있냐고

수진

(살짝 웃음) 빨리 엉덩이 까기나 해 ㅋㅋ

수진 주사를 준비하고 영수는 침대에 걸터앉는다. 수진 주사를 준비한다. 영수. 수진을 힐끔힐끔 보다, 수진이 주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계속 지긋이 쳐다본다. 영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지만 이내 열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며 눈을 감고 이마에 손을 올린다. 그리고 손 틈 새로 다시 수진을 쳐다본다. 여전히 주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진. 햇살을 맞고 있는 수진은 수수하게 이쁘다,,

수진

뭐 왜 계속 쳐다봐

영수

(이마에 손을 때며 쑥스러운 듯 딴짓을 하며) 열 때문에 는 아니,,,,고 잘 지냈어?

수진 주사를 준비하다 힐끔 보고 다시 주사를 준비한다. 눈치보고 있는 영수.

수진

뭐 이렇게 형식적 이래?

영수

궁금하니까,,

수진

많이 아픈가 보네

수진 주사기를 들고 영수 앞에 선다. 영수는 수진을 아련한 듯 바라보다 손을 슬며시 잡는다. 수진 익숙한 손길이라 반응 안하고 있다가 화들짝 손을 땐다. 영수도 정신을 차린 듯 화들짝.

수진

(당황) 아니 뭐야 뭐야,,,?

너 아직 나 못 잊었냐?

영수

(화들짝) 아니? 내가? 왜?

수진

(크흠) 그럼 다행이고

나는 너랑 사귈 때만 생각하면

영수 은근 슬쩍 기대하는 표정.

수진

(곰곰히 생각 한 뒤) 어휴,,,

(다시는 생각하기 싫다는 표정) 됐다 지난 일 말하면 입만 아프지

영수 그 말에 상처 받아 표정이 굳는다. 생각을 곰곰히 하다 덤덤하게.

영수

(영수 상처 받음) 그래 이게 너였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아프게 만드는 건 안 변하네.

넌 지금도 모르지?

영수 차가운 표정으로 침대에 엎드려 눕고,, 이게 아닌데,,, 라는 표정을 짓는다. 수진 영수의 말에 미안해지는 듯 표정이 흔들린다. 영수는 엉덩이를 살짝 깐다. 수진 아까 한 말이 신경 쓰이는 듯 괜히.

수진

(떨리는 목소리) 또 에어컨 안 끄고 잤냐?

정적,,

고개를 떨군 채 주사를 기다리는 영수. 5 초 7 초 ,, 울먹이는 소리. 아무런 느낌이 안느껴져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고개를살짝 드는데 그 순간, 영수는 차가운 감촉을 느끼고 흠칫한다. 차마 뒤돌아 보지는 못하는 영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진. 엉덩이에 톡톡 눈물이 떨어진다.

수진

(울먹) 처음이였잖아.

.

.

너만 아팠어? 너만 힘들었어? 나만 또 못된 년 이야? 나도 너 많이 좋아해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다고

영수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다)

수진

(울먹) 너는 왜 맨날 내 인생에 처음이야?,,,

첫 연애, 첫 여행, 첫 경험, 첫 소주, 첫 키스 왜 다 너가 처음이야?

안그래도 너가 다 처음이였어 근데 왜 주사까지 너가 처음이냐구 진짜 억울해

영수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고 있다.

수진

(말을이어가지,,,못,,) 나 처음하는거 잘 못한단 말이야.

영수

(고개를 올리니 감정이 푹 치고 온다 영수 다시 팔뚝에 눈을 박고 울먹거리다)

내가 처음이라서 미안해,,

수진

(영수 엉덩이를 찰싹) 미안하다고 하지마!

영수

그럼 고마워

수진

(흠칫),,,,,

영수

고맙다고,,,

됐냐,,,?!

수진

3 년이 지나고 갑자기 나타나서 뭐? 고마웠다고?

왜 그걸 지금 말해? 너무 늦었다고 생각은 안 들어 ? 너가 진짜 나빠 ,,,알아?

영수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수진

(울먹거리는 것을 진정 시키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다.)

아 씨 근데 나 모형에 밖에 안 놔 봤는데 어떡해

수진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수의 엉덩이를 톡톡톡톡 치며 주사를 놓는다.

영수

응,, 응?

수진

(울먹 하지만 목소리는 밝게 하려고 노력) 따~끔

영수 따끔한 순간.

영수

(영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수진 알콜 솜을 쎄게 누르며.

수진

(울먹) 아팠어?

영수

아니,,,,

좀 아프긴 하네

수진

나중엔 괜찮아져

영수 바지를 올린 뒤 침대에 앉는다. 수진에게 말을 걸까 말까 고민하는. 영수. 여전히 수진은 이쁘기만 하다. 하지만 말을 걸지 않고 지나쳐간다. 주사실 문 앞. 영수는 섣불리 나가지 못하고 뒤돌아서 울먹이며 감정을 추스리고 있는 수진을 쳐다본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을 쳐다보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다.

영수

수진아,,

오늘 끝나고 뭐해?

수진 흠칫.

S#5 상상

노래가 흘러나오고 https://www.youtube.com/watch?v=vELDb7Kot5s&ab_channel=SAMKIM-Topic

카메라가 빙 영수를 돌아 대학교 나무 앞 대학생 때 수진이가 보인다. 풋풋ㅆ

수진

(부끄러워하며) 나,,,뭐 없는데?

영수

그럼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수진

저녁,,,뭐,,,좋아

영수

그래 그럼 ,,! 어,,어 ,,6 시까지 정문에서 보자! 연락할께!

신나서 뛰어가는 영수. 그걸 보고 피식 웃는 수진.

수진의 집 앞/ 수진이 집에서 나오고 영수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등교한다.

도서관 / 서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 장난 치는 영수. 수진 안 받아 주다 삐진 영수를 보고 수진이 장난을 친다.

대학교 거리 / 둘이 걸으면서 티격태격 귀엽게 싸운다. 삐져서 먼저 가는 수진. 그걸 붙잡으러 가는 영수.

편의점 앞 /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귀엽게 나눠먹는 둘.

집 안 / 영수와 수진 서로 뒹굴며 장난 친다. 그러다가 키스 후 약속을 한다.

s#6 병원 앞 거리

영수와 수진이 손을 잡고 정류장을 지나치고 병원 앞에서 뽀뽀를 한다.

영수

오늘 첫 출근인데 잘해!

수진

나 너무 떨려 어떡해 영수야,,? 주사 어떡하지

영수

아이 또 엄살 피우네,,!? 너 지금 완전 나이팅게일이야 지금.

수진 피식 웃고 서로 사랑스럽게 마주보다가 병원에 들어가려고 뒤돈다. 그리고 정류장 쪽을 스윽 본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영수. 수진과 영수는 눈이 마주치고 서로 시원섭섭한 미소를 짓고 수진은 들어간다. 과거의 영수는 뒷모습만 보인 채 계속 걸어간다.

영수 허탈한 웃음으로 고개를 한번 떨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주사 맞은 부분을 손으로 만져본다.

영수

괜찮네.

금세 어이 없다는 듯 피식 웃는다.

영수

괜찮아지네

노래가 흘러나오고 영수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에 빠진다.

시원섭섭한 표정.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노래가 흘러나오고)
https://www.youtube.com/watch?v=93S48NfY6OE&ab_channel=MAGICSTRAWBERRYSOUND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고 옆에 있던 영수는 버스를 탄다. 크레딧이 올라가고 버스 정류장 주위를 쌩쌩달리는 차들.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 쯤 저녁이 되고

수진도 버스 정류장으로 나온다. 앉아서 무언가를 기다리다 정류장 앞 승용차가 서고 수진의 남자친구가 나와 수진을 와락 앉는다.